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오름



### <광림광야학교>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2024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7월 12일 ~ 8월 4일까지 진행

녹음이 짙어지는 푸르른 여름이 되면 광림교회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된다.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들이 잠시 분주한 세상과 떨어져 신앙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영적인 기회이다. 더불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또래와 함께 단체 활동을 하며 집에서 배우기 힘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교회학교는 2024년 여름성경학교를 <광림광야학교>로 명명하고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출 14:13)라는 주제로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서별로 <광림광야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이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 입성 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40년을 보냈던 곳이다.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

안 입성 전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과정을 말씀과 공과,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고 있다. 교회학교는 이번 광야학교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초고속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빠른 길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학교가 광림광야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인 여름성경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유년부는 1박 2일, 초등부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광야학교를 진행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일정을 보내야 해 긴장을 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또래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미니 올림픽, 물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돌아왔다.

소년부는 지난 19일 ~ 21일, 2박 3일 동안 광림비전랜드에서 집회, 광야 어드벤처, 물썰매, 수영, 성경 골든벨 등을 진행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광야학교는 지난 21일 사회복지관에서 부서별로 실시했다. 아이들은 흥해 건너기 등 광야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 특별히 유아부와 유치부는 학부모들이 헌신하여 아이들과 교사를 위한 수제도시락과 간

식을 준비했다. 임재철 목사(교회학교)는 영아부 광야학교 설교에서 "우중에도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오늘 드린 예배와 성찬식은 분명 신앙의 한 조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바른 길은 빠른 길보다 느리고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부모님들이 자녀를 화려한 길이 아닌,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양육할 것을 당부했다.

7월 26일 ~ 28일에는 비전랜드에서 중고등부, 7월 27일 ~ 28일에는 교회에서 영어에배부 광야학교가 진행 중이며, 8월 3일 ~ 4일에는 교회에서 어와나의 광야학교를 끝으로 2024년 여름성경학교가 마무리된다.

✎ 박희윤 기자

#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룩한 영

“...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 4:6)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 갇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과 성, 권력에 얽매어 사는데, 이것들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치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모든 것을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고, 내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14년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의 부족, 삶의 위기, 상황의 어려움들을 말하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세상의 문제 앞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스가라는 자신의 환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끊임없이 천사에게 환상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중요한 약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말씀은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



### 스가라 4:1-6

1.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3.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5.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	6.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	--	--	--	--	---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갈 때 그 삶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 둘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셨습니다(2절).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스가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천사들이 묻는 말을 되물으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5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통찰력은 현상을 파고들어 그 본질을 보게 합니다.

갓난아이를 가진 엄마가 잠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를 달래보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와 아이의 상태를 보고 기저귀를 갈자 아이는 평온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도 아이의 불편함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삶의 관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 뒤에 감추

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 셋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기 전에는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때문에 교만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교만은 스스로를 나약함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나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셉과 다니엘을 키우는 <1만원 장학 후원>

2024년 2학기 광림장학생 선발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닷물을 이루듯, 많은 광림교회 성도들의 정성으로 모여진 <1만원 장학후원>과 장학위원들의 헌신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광림 장학위원회(위원장 최동호 장로)는 2024년 2학기 성적우수 광림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서류를 작성한 후 목회행정기 획실로 7월 28일(주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신청 지원서, 자기 신앙 소

개서, 목회자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14일(수) 광림교회 홈페이지(klmc.church)에 최종 선발된 제32기 장학생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축하예배 및 수여식은 9월 1일(주일), 지하 1층 두란노강의실과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교회 봉사활동,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가족의 교회 출석,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한 학기당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원에 관련된 서류들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다.

지금도 광림 성도들이 매달 또는 분기별로 헌금을 통해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장학위원이란 마음으로 더 많이 동참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들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청년들을 후원하는 1만원 장학후원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감사헌금 봉투의 괄호 안에 '장학'이라고 기재한 후 헌금을 드리면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1998년부터 매년 학기별로 2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광림 장학위원회는 연간 100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만원 장학후원>, <개인 명의 기념 장학금>, <기업 장학헌금> 등 기업체와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문의 : 장학위원회 박상희 권사 (010-5351-2640)

유병권 기자

## 포토 뉴스



사회사업위원회 후원금 전달  
사회사업위원회는 국내-해외선교에 힘쓰는 청년선교국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청년선교국 2024 여름 국내-해외선교  
7월 18일~8월 19일, 청년부 국내-해외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26일~28일, 광림비전랜드에서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8월 3일~4일, 광림비전랜드에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된다.

# 2024 상반기 목회세미나



2024년 상반기 목회를 되돌아보고, 2024년 하반기 목회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2024 상반기 목회세미나>가 지난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나사렛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목회세미나에는 광림교회 선교구와 교

회의 각 기관과 부서 및 외부 기관에서 목회하는 100명의 목회자가 모여 함께 상반기 목회를 점검하고, 하반기 목회 계획을 나누었다.

이번 목회세미나를 주재한 김정석 담임목사

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회 내의 선교구와 기관, 부서가 함께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통한 유기적인 목회가 이루어져 목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속회와 선교회의 모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생명력 있는 교회의 활동이 가능함을 이야기했다. 상반기 목회세미나를 통해 상반기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광림교회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리며, 하반기 목회를 다짐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 김정석 담임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로 추대



지난 7월 14일(주일) 저녁에 김정석 담임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 추천 결의>를 위한 임시구역회가 광림교회 본당에서 진대홍 감리사(강남지방) 주재로 열렸다. 이날 열린 임시구역회에서 김정석 담임목

사는 광림 성도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 속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로 추대되었다.

임시구역회에는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등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구역 회원

1,749명 중 1,442명이 참석했다. 무기명 투표로 엄숙하게 진행된 투표 결과 구역 회원들의 대다수의 찬성표를 압도적으로 얻었으며, 김정석 담임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 출마 자격을 얻었다.

광림 성도들의 투표를 거쳐 감독회장 출마 요건을 모두 충족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9월 말, 연회감독과 감독회장을 뽑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선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사명이 주어질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광림 성도들은 김정석 담임목사가 감리 교단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도록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정순 기자

## 담임목사 동정



7/19 상반기 목회세미나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 무소부재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3년 전쯤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걷기가 많이 힘들어져 자신감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호렙산 기도회가 열리는 본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속에 '내가 불편함을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혹시 다른 기관의 이상으로 인해 보형 장애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지속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상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나게 되었고, 전도사님은 그동안의 저의 사연을 듣고 입원해서 몸의 전반적인 것을 검사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지럼 센터로 유명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병 증세와 관련된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진행 중에 약물과 주사가 투여됐습니다. 입원 중에도 계속 온라인 호렙산 기도회를 드렸지만, 간호사들의 야간 순회와 2인실 병실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호렙산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입원 3일 차에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적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검지에 떨림이 있어서 특히 새벽예배 때마다 바르게 글씨 쓰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왠지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글씨를 받아 적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불리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가 내일 다시 본래대로 떨리면 어쩌나 의

심이 되어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전도사님께 간증문을 쓰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간증을 쓰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본당에 참석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간증문을 쓰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병실까지 찾아오셔서 에벤에셀로 나를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70년 평생을 돌아보며 고린도후서 12장 9-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

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병원에서 뇌 기관이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고 나서 마치 어린 시절 숙제를 끝마친 후의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검사 기간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케 해주시길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송희 권사(25교구)

## 믿음의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라

저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2019년 10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탄으로 이사 온 후 작년 8월부터 광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의 신앙생활이 달라서 버거울 때가 있었는데, 호렙산 기도회가 대표적입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벽기도회라 처음에는 몹시 망설여졌지만, 여러 교우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새벽 4시 45분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특별 기도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연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기도회

라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40일을, 그것도 토요일-주일까지 강행하는 호렙산 새벽기도회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잠이 많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 날 생활에 지장이 있는 편인데, 주변 분들의 권면의 말씀이 마치 주님이 '너는 무슨 옥합을 나에게 깨서 바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단잠이 저의 옥합인 것 같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생각에 굳게 결심하고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호렙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제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임을 매일 느낍니다. 그리

고 더욱 감사한 것은 남편과 같이 40일 동안 호렙산을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5년도 채 안 된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새벽을 가르는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말씀, 주님이 부여주시는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새벽기도였는데,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애 처음으로 새벽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는 남편의 성실한 태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생명의 말씀 같고, 국내외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스스로 영적 상태

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은퇴 후 무력감과 나태함에 빠져있던 남편이 옛날에 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생활의 활기를 찾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 '믿음의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 부부에게 도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정말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지 못한 제 삶을 돌아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의 생애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통제하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인옥 권사(75교구)

##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코로나와 학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제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심방 감사헌금을 준비하지 못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은 교회 와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마음에 빛이 생길 것처럼 빨리 가서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부활주일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와서 헌금도 드리고 다시 속회도 나왔습니다. 새로 생긴 동탄성전에 발을 들이면서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속장님, 속회 식구

들 여러 명이 호렙산에 오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찰나,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아 골칫거리였던 부동산이 호렙산 시작 이틀 전에 정리됐습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았고, 이번 40일을 지탱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호렙산 첫날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호렙산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이었는데, 이직 문제와 남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니 사탄의 방해를 받았고, 남편의 회사 문제는 물론 마음과 정신까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살려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호렙산 11일째, 기도 중에 남편이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빛이 환한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응답이구나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히 새벽기도를 섬겼고, 16일째 되는 날 남편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펴펴 쏟아냈습니다.

19일째 날, 남편은 최종 면접 통보를 받았고, 속회 식구들과 목사님, 전도사님께 중

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 26일째 되는 날 최종 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마음 한편에 불안과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33일째 되는 날, 담임목사님이 응답하시고 믿고 기다리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멘, 아멘' 화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남편도 예배와 속회를 드리고, 헌금 위원-꽃꽂이 봉사 등 그동안 놓아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렙산 하루도 빠짐없이 40일 동안 저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께 올려드린 나의 기도를 모두 받아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정연 집사(75교구)

#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 높은 과부의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

지난 수년간 점을 보며 무속신앙에 의지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2021년 호렘산 새벽기도회를 통해 호렘산 기도회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믿는다’라며 회개하고, 아들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고 출연 제의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해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영화, TV 드라마, 광고, 시상식 사회 등 각종 매체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들이 출연한 드라마 <마이 네임>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아보는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피로도가 높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 년의 쉼을 갖기로 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다시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호렘산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척추 수술 이후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요양사의 도움으로 지내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사 치료를 받고 있으니 호렘산

에는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영상으로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기도하기가 죄송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6월 20일경, 우연히 아들이 집에 왔길래, 고장난 TV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에 TV가 켜졌는데, 화면에 한국의 유명한 영화감독 얼굴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지금 저분 작품 섭외가 들어오길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분 작품 섭외가 들어왔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응, 뭐라고?” 또 두 번을 연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독님 작품의 섭외가 들어왔다고 말하며, 우리 모자는 손뼉 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외아들이자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드리며, 높은 과부의 소망을 들어주시니 이 감사한 마음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명선 권사(4교구)

##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4개월 전 광림북교회 출석 교인이 되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71교구 장은혜 성도입니다. 남편과 시댁의 고향인 강원도 인제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달라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곳 의정부 광림북교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란 저에게 사실 시골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인프라, 의료나 아이들 교육 부분까지 모든 것이 불편했던 저에게 여러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여 뜨거운 눈물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사모함을 통해 그 시간을 버티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제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지만, 매번 하루 이틀 만에 번번이 완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40일 호렘산을 완주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겐 역시나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번 호렘산 기도회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셨고, 반드시 완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북교회 앞에 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호렘산 기도회 중 남편과 저의 새로운 직장에 대한 문제도 응답받고, 딸도 함께 호렘산에 오르며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빠르게 적응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속히 식구들과의 교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40일 동안 힘에 부치지 않고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강원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고, 수많은 분의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광림교회를 사랑하며 제 인생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과 친정어머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은혜 성도(71교구)

##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호렘산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른 지 2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양에서 호렘산 기도회에 참석하여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저희 지구 식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5년 동안 마음의 병으로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딸의 아픔을 아뢰었던 기도에 대하여 “권사님! 제 딸이 취업이 되어 집 밖으로 나섭니다”라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위의 목사 고시 합격을 위해 아뢰었던 기도에 대하여 “어머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라는 응답으로, 사랑하는 딸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응답으로,

속회 예배만 드리던 성도가 주의 일꾼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에 대하여 “지구장님 제가 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아요!”라는 응답으로, 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마음 아파하던 며느리를 위해 올렸던 기도에 대하여 “결혼 6년 만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라는 응답으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눈물로 부르짖던 기도에 대하여 “30년 동안 믿지 않던 신랑이 담배를 끊고 지방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라는 응답으로, 그동안 호렘산 기도회 때 눈물로 부르짖던 저희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씩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명희 권사(14교구)

## 다시 회복되는 기쁨

간증은 호렘산 새벽기도회를 완주하신 분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제 삶을 나눌 수 있을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실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성실로 이끌어 가시고, 의지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의지로 인도해 내시는 과정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호렘산 기도회 기간 동안 기도했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마다 붙들 말씀주시며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알려주신 이 시간이 이미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 기쁨이 사라졌던 제 마음속에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아 새벽에 교회까지 걷지

못하고 달려나갔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삶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1-3)

오솔샘 집사(5교구)



청년부

# <2024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태국 단기선교>

7월 18일 ~ 7월 25일까지 진행



2024년 여름,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는 국내·해외 아웃리치가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아웃리치 지역은 태국이다. 청년선교국의 박소민 전도사 외 15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태국 단기선교팀은 수개월 동안 해외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와 말씀, 해외 선교교육 등을 통해 훈련받았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7월 18일에 태국, 치앙마이 땅을 향해 출발하였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태국 단기선교팀은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9시간을 달려 태국 원주민들이 사는 포푸라 지역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광림교회 청년들의 헌신과 현지 성도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루엠타이교회가 있다. 선교팀은 루엠타이교회를 중심으로 현지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300여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찬양, 위십, 무언극, 코스 게임, 체육대회, 아카데미 등 준비

한 어린이 사역들을 진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그중에는 수년 전에 태국 단기선교팀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 있었다. 태국 청소년들은 광림의 청년들과 함께 보조교사로 섬김을 자청했고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며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

고, 이전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성경학교 일정을 마친 태국 선교팀은 도이 수텡 지역을 방문하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땅 밟기 기도를 진행하였다.

태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불교 의식이 깔려 있어 기독교인은 0.65%밖에 되지 않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또 10여 년간 광림의 청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청년부는 2024년 여름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교회학교와 해외에 있는 선교지들이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 언약! 그 놀라운 자유



성경적 결혼관을 통해 배우는 관계 최근 청장년 1부(미혼)에서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교재로 황지수 목사(청장년부)가 '성경적 결혼관을 통해 배우는 관계'라는 시리즈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3번째 순서인 지난 7월 21일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열린 주일 집회에 전 가정법원 판사이자, 현재 인천법원 부장판사인 신순영 판사를 초청해 <언약! 그 놀라운 자유>라는 강연을 들었다.

계곡 살인, 위생 패드 간병인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던 신순영 판사는 가정법원에 근무했을 때부터 평소 대한민국 내 높은 이혼율, 가정 내 폭력, 아동학대의 대물림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이혼의 근본 원인인 의사소통 방식과 언어의 소중함을 주장하며 '결혼 전 부모 교육 의무화 운동' 또한 벌여왔다.

신순영 판사는 바쁜 와중에도 이번 3040 싱글들을 위해 기도로 특별히 <언약! 그 놀라

운 자유> 특강을 새로 준비했다. 요즘은 동거를 미화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편리한 합리화와 이 세상 가치들로 싱글 세대를 유희하고 있다.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으로 죄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지 나누었다.

자신 또한 결혼 생활 경험을 통해 주도권 잡기와 정죄하기 같은 빠 속 깊이 박힌 인본주의를 깨닫고, 가정 내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과 그 속성 중 독점, 보호, 친밀함과 자유함, 하나 됨 등에 대해 묵상한 것들을 청장년부에 나누어 주었다.

또 많은 죄인들을 마주했던 현직 판사로서 죄의 속성인 두려움, 위협함, 자극과 파괴 등도 대비해 언약과 비언약 상태를 조명함으로써 청장년 세대에게 언약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경조위원회

## 영성수련기도회 열어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는 7월 16일 위원회 임원 및 각 교구 경조위원장 등 30명과 함께 진천에서 영성수련기도회를 가졌다. 먼저 국가대표 체육인들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을 찾은 참석자들은 홍보를 담당하는 선수촌 책임자의 안내로 대지 5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시설 가운데 몇 곳의 경기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파리 올림픽을 10일 앞둔 시점이라 많은 선수들이 현지로 떠난 뒤였지만 수영, 태권도, 탁구 경기장에서는 낮익은 대표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어 오륜기가 새겨진 포토존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뒤 인근에서 참석자들은 경조위원회 총무인 조항장 권사의 진행으로 영성기도회를 열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과 함께 힘찬 찬양을 한 후 호렙산에서의 열기를 이어가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단의 건투를 비는 기도도 이어갔다. 점심 식사 후 진천의 명물 농다리와 미르숲 및 공원 내 설치된 관광지들을 자유롭게 들

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 예보가 있었지만 준비된 일정을 다 마친 후 돌아오는 시점부터 많은 비가 내려 모두가 감사하다고 외쳤다.

최순호 권사(11교구 경조위원장)는 "임원들의 수고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촌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위해 합심기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들로 축조된 천년 역사 농다리와 현대모비스 후원으로 잘 조성된 미르숲을 둘러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경조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고 했다.

배경호 장로는 "격년에 한 번씩 경조를 맡고 있는 성도들의 심신단련과 영적 충진을 위해 영성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굵은 일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경조를 맡고 있는 성도들이라 생각하며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조위원회에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목회현장

#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또한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나,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3선교구는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여도 모이고, 안 모여도 모인다'는 motto 아래 매달 속장세미나, 일일기도회, 3선교구 하나데이(단합대회), 야외예배 등을 광림세미나 하우스와 광림비전랜드에서 진행했습니다. 호렘산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대심방은 물론이고, 7개의 기업에서 매달 기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과 함께 하는 선한나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매달 쌓여지는 기업 예배를 통해 기업의 자금의 문제, 직원과의 문제, 거래처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이 번창해 되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광림세미나하우스에 올라가 예배하는 중에 장막(전세)의 문제가 정확한 시간에 해결되어 졌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1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예배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 제목에 집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배할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3선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덕민 목사(3선교구)

광림의료선교회

## 동남아시아 감리교 청년 미션 캠프에서 의료 활동



얼마 전, 김정석 담임목사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아시아 청년 미션 캠프 의료 진료 후원 건으로, 해당 캠프 기간 광림교회 의료선교회의 진료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기독교는 소수자로 차별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며,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고,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선교의 '땅끝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제4회를 맞는 아시아 청년 미션 캠프(2024 ASIAN YOUTH MISSION CAMP)는 아시아 기독교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는 귀한 시간으로, 조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고 있다. 이 캠프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청년들과 선교사들은 대부분 열악한 의료환경 안에 살고 있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광림교회 의료선교회가 캠프에 참가해 영과 육신의 치료와 회복에 나섰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 양평대한수도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 중 의료선교회는 4일(목) 오후 수도원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의료선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비인후과 정하원 장로를 비롯해 치과 윤두중 장로, 피부과 안효원 총무, 간호사 주원화 권사와 목회선교지원실 최이세 목사와

남준혁 전도사가 함께했다. 이날 하루 45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선교지에서 쓸 수 있는 약 패키지와 비타민, 유산균까지 꼼꼼하게 챙겨 전달했다.

이번 의료 선교 활동을 이끈 정하원 장로는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결정에 따라 의료선교회가 앞장서서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청년들을 돕고 건강을 보살펴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광림교회 의료선교회는 선교활동을 통해 만난 만성질환자들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후속 치료를 돕기도 하고,

광림교회에 출석하는데 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의 치료를 위해 금전적, 행정적인 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손길을 건네고 있다. 그 첫 열매로 얼마 전 외국인제자센터 산모의 분만을 위해 70만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점차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선교회와 동행한 최이세 목사는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왔는데, 광림교회 의료선교회의 양질의 진료를 받고 매우 만족했다”고 했다. 의료선교회는 의료선교를 통한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 한혜선 기자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0-2



## 바울의 전도와 기독교인이 된 간수 ②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행 16:29-32)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다. 고난과 위험이 따른 선교 여행이었지만,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각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동료들을 만나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하며 말했다.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잘못입니다.”

첫 선교 여행에서 두 사람을 수행한 마가는 예루살렘 마리아의 아들로 바나바의 조카였다. 바나바는 젊고 사회 경험이 미숙하여 실수를 저지른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선교한 지역에 가서 잘 믿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결국, 심하게 다툰 두 사람은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편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 반면 바

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테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바르게 자란 디모테는, 그 지역에서 훌륭한 청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바울을 그를 선교 사역에 영입하고 싶었다. 이번 선교 여행에 디모테를 데리고 가서 좋은 경험과 훈련을 겸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울이 디모테에게 말하였다. “디모테야, 우리와 함께 가겠느냐? 우리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갈 것이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다.” 디모테는 바울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테 세 명의 선교사는 안디옥을 거쳐 서쪽 소아시아를 향해 가면서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 지역에 머물면서 다음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 주었다. 바울이 일행에게 그가 본 환상을 말하며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다.” 마케도니아는 동쪽에서 가자면 유럽의 관문으로, 바울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하였다. 마케도니아(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서쪽)는 드로아에서 북서쪽에 있으며 유럽의 동부 관문이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왕국(알렉산



더 대왕의 나라)의 수도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변화한 도시였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확산 효과는 클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거주자가 별로 없는 탓에 회당이 없었다. 몇몇 유대인들이 강변에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식일에 강변에 갔다. 과연 유대인 여자들이 강변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중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제가 당신들과 하나이며 진정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 바나바\_ 본명은 요셉이지만, 바나바(위로의 아들'이란 뜻)로 불리었다.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갈라져 마가와 함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변호하기도 했으며, 기독교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에 힘쓴 주역이었다.

작자 미상

▲ 사도 바울과 루디아\_ 루디아는 값비싼 자주색의 직물을 만들어 파는 상인으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인이다. 그녀는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든 것을 헌신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루디아의 헌신과 봉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작자 미상

이렇게 유럽에서의 첫 교회가 탄생하였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기도 장소로 가던 중에 점을 쳐서 예언하는 여인을 만났다. 점쟁이 여인은 바울 일행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쳤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렸기에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 것이었다. 점쟁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자 바울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적인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점쟁이 여인에게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광림 뉴스레터

